

요약하자면, 본 작품은 청중을 압도하며 음악의 아름다움 위로 인간의 희로애락 감정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철저하게 표현해 내고 있다. 완벽한 주제의 구성과 발전, 강력한 추진력, 악장 간의 유기성과 통일성, 충격과 긴장의 연속, 곡 전체를 관통하는 '암흑에서 광명으로' 혹은 '비극에서 승리로' 라는 사상의 구현!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고금을 통틀어 서양음악 중 가장 감동적인 작품인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은 대중성을 넘어 단 하나의 음표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았을 정도로 음악사상 유례없이 완전한 곡이라 할 수 있다.

1악장은 '운명의 동기'로 시작하는데, 이 동기는 c단조의 4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음악 동기라 할 수 있다. 이어지는 2주제는 호른으로 시작하여 바이올린이 이어받아 부드럽게 연주하는데, 호른에 의한 주제 역시 바로 '운명의 동기'이며 2주제를 반주하는 저음의 움직임도 역시나 이 동기의 변형이다. 결국 운명의 동기를 고집스럽게 반복,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거의 1주제를 다루는 발전부에 이어 재현부로 들어가 잠시 오보에의 짧은 카덴차(cadenza, 솔로 악기가 연주하는 기교적이고 화려한 부분)에 의해 긴장이 이완되기도 하지만 다시 맹렬한 코다로 이어진다.

두 주제를 사용한 변주곡 형식의 2악장이지만 각 변주에는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을 만큼 자유로운 변주로 악상의 변화가 정묘하다. 1악장의 격렬했던 투쟁 후 이어지는 서정적이고 평화로운 악장이며 위안을 주는 듯 분위기가 부드럽지만 1번이나 2번 교향곡의 느린 악장과는 달리 극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매우 큰 차이이다.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저음 유니즌으로 연주되는 1주제와 클라리넷, 바순 등 목관에 의한 2주제가 나타나 차례로 변주되다, 경과부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루는데 오케스트라의 팡파르에선 승리감을 고취시킨다. 다시 주제를 변주하다 마지막 코다로 이어져 크게 부풀어 오르며 악장은 마무리된다.

3악장은 1악장과 같은 조성인 c단조의 스케르초로 3부 형식. 첼로와 콘트라베이스에 의해 으스스한 1주제가 울리고 호른에 의해 또다시 '운명의 동기'가 변형되어 취급된다. 대위법을 활용한 빠른 템포의 트리오에는 쾌감을 주며 다시 1주제가 나타나 활약한 후, 팀파니의 셋잇단음표 악주와 함께 소리가 신비하게 고조되어 나간다. 점점 힘을 부풀려 폭발함과 동시에 종악장으로 씬 없이 이어지는데, 4악장에 들어가기 직전 마치 영원히 4악장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극적 긴장감이 일품이다.

드디어 도달한 C장조의 4악장에는 오직 고뇌에서 환희로 이어지는 절정의 승리만이 존재하며 절망을 뚫고 높이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한 악상이 전개된다. 앞 3개의 악장에 없었던 피콜로, 콘트라바순, 3대의 트롬본이 가세하는 것도 큰 특징. 금관에 의해 유명한 1주제가 포르티시모(ff, 매우 세게)로 울려 퍼지며 바이올린에 의해 춤을 추는 듯한 G장조의 2주제도 이어진다. 일대 클라이맥스를 구축하며 3악장의 주제도 잠시 회상한 후 마치 3악장에서 4악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처럼 서서히 분위기가 고양되다, 폭발하는 금관이 1주제를 연주하며 재현부가 연결된다. 최후의 코다는 지금까지 나타난 온갖 동기들이 조합되어 속도는 빨라지고 표현을 고조시키다 흥분의 절정 속에서 혁명적인 피날레로 마무리한다. 마지막 악장은 그야말로 황홀하면서 환희에 가득 찬 순간들의 연속인 것이다.